





SALVATION  
THROUGH  
REPENTANCE

회개를 통한 구원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 저  
아미나 깍은미 / 옮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 목 차

서 문	5
제 1 장 : 정의	8
제 2 장 : 조건	28
1. 알라에 대한 염원	28
2. 즉시 후회	34
3. 죄악의 중지	36
4. 보 상	40
5. 슬 품	41
6. 선 행	43
7. 회개가 더 이상 수락되지 않은 때	51
제 3 장 : 속죄의 방법	54
카프파라	57
제 4 장 : 회개의 기도문	69
성 꾸란에서 인용한 기도문	71
순나에 따른 기도문	74
하디쓰 목록	80
인용문헌	94

## 서 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주제는 매우 특별한 관심사다. 구원이란 모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자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들의 과오가 계산되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최악의 결과를 면제받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체계는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치 아래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부류이며 두 번째는 업적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다.

구원이란 누구나 일생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자신의 궁극적 안녕은 전적으로 얼마나 이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에 임한 적이 있었으며 이에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두 주장에 대해 이슬람적 관점을 반영하는 자료를 제시하려 한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의 개념과 업적에 의한 구원의 개념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해 영어로 쓰인 명확한 자료들이 매우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결국 영어로 쓰인 마땅한 자료를 찾지 못하다가 살리

알 사들라안 박사가 집필한 60페이지 분량의 아랍어로 쓰인 Repentance to Allah(알라로의 회개)<sup>1)</sup>라는 소책자를 읽게 되었다. 필자는 이 소책자를 즉시 번역하기로 결정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오직 무슬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더욱 필요한 것은 논의의 쟁점을 다루면서도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 자료다.

따라서 필자는 알 사들라안 박사(알라께서 그 분의 노력에 보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의 글을 기초 삼아 비교 이슬람적 관점에서 이 중요한 주제에 접근하려 한다.

본서가 무슬림 독자와 비무슬림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자는 속죄의 방법을 다루는 이슬람법을 소개하는 장과 성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말씀으로부터 발췌한 회개의 기도문을 수록한 장을 추가하였다.

필자는 본서의 여러 곳에 성 꾸란의 구절과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며 그 자료들은 최대한의 정확성을 위해 이 분야의 현존하는 학자들의 판단에 따라 가장 신뢰되는 자료를 제시하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작품에도 완벽은 있을 수 없으므로 고의가 아닌 실수들에 대해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알라께 간청 드린다. 또한 필자가 본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본서를 읽거나 배포하는 모든 이들에

1) Saalih ibn Ghaanim Al-Sadlaan, at-Tawbah elaa Allah (Riyadh : Daar Mu'aadh, 2nd ed, 1988)

계도 유익한 책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필자가 손으로 쓴 원고를 정성들여 타이핑 해 주시고 하디쓰 목록을 준비해 주신 스리랑카의 이프테카르 맥킨 형제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알라께서 본서를 수락하시고 선행의 저울에 올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간청드립니다. 성공은 오직 알라와 함께 합니다.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히즈리 1410년 샤오바안 달/1990년 2월-3월



## 제 1 장 정 의

현대 영어로 회개를 뜻하는 Repentance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삶을 개선해 나가려는 자아의 헌신적 행동과 과정을 의미한다.<sup>2)</sup> 또한 후회와 슬픔을 뜻하기도 하는데<sup>3)</sup> 이는 라틴어 poenitere(후회하는 것, 미안해 하는 것)로부터 그 어원을 갖기 때문이다. 아랍어로 회개는 **타우바**라고 하며 이 단어는 귀환을 의미하는 타-바 야투-부(تَابَ يَتُوبُ)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다.<sup>4)</sup> 이슬람적 관점에서 회개(타우바)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멀리하고 그 분께서 명하신 것으로 귀환하는 행위를 말한다.<sup>5)</sup>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하게 태어난다고 믿는데 이러한 상태를 피트라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귀환이라는 개념은 매우 강조된다.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교우이신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선지자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2) Webster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USA : G & C Meriam Company, 1976), p.980-981.

3) W. L. Reese,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New Jersey : Humanities Press Inc. 1980), p.490.

4) E. W. Lane, Arabic-English Lexicon, (Cambridge, England : Islamic Texts Society Inc. 1984), vol.1, p.321.

5) Muhammad ibn 'Allaan as-Siddeeqee, Daleel al-Faaliheen, (Cairo : Al-Halabee Press, Final ed. 1971), vol.7, p.78.

“모든 인간은 원선(피트라)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도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새끼 낳는 과정을 도와줄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새끼에 소인을 찍어 두기 전에 이미 소인이 찍혀져 나온 새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히 알 부카리 vol.8, p.389-390, #597

사히 무슬림 vol.4, p.1398, #6423

인간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회개란 인간이 스스로를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죄가 없는 원래의 순수한 피트라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알라<sup>6)</sup>의 자비와 은혜로써 회개란 그 자체로도 숭배의 한 가지 형태가 되며 인간은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sup>7)</sup>을 통해 모든 신앙인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신다.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성 꾸란 24:31<sup>8)</sup>

6) 단 한 분이시자 유일하게 존재하시며 홀로 숭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는 알라다.

7) 아랍어로 꾸란(القرآن)의 문자적 의미는 읽기 혹은 낭독이다. 꾸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계시서에 붙여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 عليه السلام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ﷺ에게 성 꾸란을 계시하셨다. 성 꾸란은 선지자님 ﷺ의 생애 동안 그분의 교우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기록되고 암기되었으며 1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점일획의 변화 없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성 꾸란은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이다. 반면 하디쓰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님 ﷺ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인 성 꾸란과 구별된다. 하디쓰 역시 매우 신중하게 기록되고 암기되어오고 있다.

8) 역자 : 본서에서 인용된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은 최영길 박사의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사우디 아라비아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H.1425>를 따른다.

알라의 마지막 사도님ﷺ은 이 명을 따르시고 신앙인들 또한 규칙적으로 알라께 회개하라고 권고하셨다. 알 아가르 이븐 야사아르 알 무자니가 전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오! 사람들이여, 알라께 돌아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 역시 매일 백 번 회개합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18, #6523

리야드-우스-살리히 vol.1, p.10, #14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그 분의 명에 순종함으로써 참회하는 죄인은 하나의 훌륭한 숭배 행위를 다한 것으로 그의 죄는 완전히 용서된다. 아부 우바이다 이븐 압둘라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3427

인간에게 회개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 처음부터 순수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여하신 한계를 지닌 속성과 자유의지에 의해 생겨난 자연스런 결과물이다. 이에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전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나 그 중 끊임 없이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합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3428

알라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속성을 의도

적으로 부여하셨다. 회개하는 인간을 용서하심으로써 알라의 자비와 관용의 속성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삶의 실재에 대해 선지자 무함마드ﷺ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부 아이윅과 아부 후라이라의 전승이다.

**“만일 여러분이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알라는 여러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는 백성이 될 것이며 알라는 이에 용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6-1437, #6620-6622

잘못을 저질렀다가도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정신적 성장을 이룬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과 헌신의 자세로 돌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식과 존경의 감정을 키워나갈 수 있다. 최초의 인간이자 선지자이셨던 아담 عليه السلام과 아내 하와(이브)는 인간의 결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보여주는 전형적 예시다. 성 꾸란의 여러 구절에 아담 عليه السلام의 실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교훈이 제시된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과 언제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먼저 언급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내와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너희가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는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의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라 했노라 이때 아담은 주**

**님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진실로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성 꾸란 2:35-37

아담 عليه السلام과 이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총으로 용서받았다. 그들은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이에 그들은 자비로우신 알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회개하여 잘못을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계시된 성 꾸란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의 죄는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 알라는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셨으며 또한 알라에게 돌아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 알라의 명을 거역하여 죄 지은 사람은 전적으로 각자 책임을 진다. 개인이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이 가르쳐 오신 기본적인 개념으로써 성 꾸란에서도 역시 재차 언급된다. 또한 성 꾸란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주님에게로 바로 귀환할 것을 강조한다.

**타인에게 저지른 죄악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거늘 하나님  
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성 꾸란 4:11

**누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거늘 누구든 타인의 짐  
을 대신하여 질수 없노라**

성 꾸란 6:164

그 누구도 타인의 죄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만일 바란다면 해도 그럴 수 없다. 현존하는 구약 성경의 변질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분명한 말씀을 구약전서에서 찾을 수 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찌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 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 : 20)<sup>9)</sup>

알라는 죄인이 그 분께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에 기뻐하신다. 바로 알라께서 인간에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자연적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한다면 알라는 무한한 자비로써 용서하신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며 또한 그 분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다. 회개란 알라의 큰 기쁨을 사는 의로운 행위이자 승배의 행위다. 성 꾸란에 알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성 꾸란 2:222

선지자님 ﷺ의 다음 말씀은 아나스의 전승을 따른다.

**“종복들이 회개할 때 알라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사막에서 짐을 실은 낙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14, #321

사히 무슬림 vol.4, p.1434, #6611

리야드-우스-살리히 vol.1, p.10-11, #15

9) BIG 베스트 성경 편찬대표 이종성 박사 (성서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반드시 창조주께 돌아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다.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사람은 기꺼이 용서받는다. 회개를 통한 구원의 문은 진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를 위해 항상 열려 있다. 이븐 압바스와 아나스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아담의 자손을 위해 황금으로 가득 찬 계곡이 있더라도 인간은 또 다른 계곡을 원할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이 종료될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sup>10)</sup>

사히 알 부카리 vol.8, p.296-297, #444&446

사히 무슬림 vol.2, p.415, #3413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5, #3413

리아드-우스-살리히 vol.1, p.27-28, #23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실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분께서만 인간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수여하시고 그에 따라 판단하시여 보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알라이시다. 이는 성 꾸란의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어 사탄의 계략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성 꾸란 3:135

10) 무함마드 ﷺ 어록 (200선) 선정 압둘라힘 알파히미 번역 및 해설 최영길 박사 (도서 출판 알림) p.139

**하나님은 그분 중들의 회개함을 받아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성 꾸란 42:25

선지자님ﷺ께서도 또한 자주 반복하여 이를 가르치셨다. 가장 절친한 교우이신 아부 바끄르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알라훔마 인나-달람투 나프씨-둘만 카시-라-알라-야그피루두누-바 일라-안트  
오! 알라! 진실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나이다.”**

사히 알 부카리 vol.1, p.442, #796

사히 무슬림, vol.4, p.1419-1420, #6533

회개에 있어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쳐온 유일신주의 개념(아랍어로 타우히드 알 이바다)과 일치한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숭배를 금하는 것이다. 알라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각 민족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성 꾸란 16:36

모든 무슬림들은 성 꾸란의 첫 장인 알파티하장을 하루에 다섯 번의 의무예배를 통해 암송한다. 알파티하장의 다섯 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하오니

성 꾸란 1:5

모든 숭배 형태는 숭배에 응답하시는 알라를 향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알라 외에 또 다른 영원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알라의 피조물의 일부이며 사실상 인간에게 보호나 도움을 줄 수 없다. 위대하시고 영광되신 알라께서 성 꾸란에 계시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대신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해로움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느뇨**

성 꾸란 21:66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같은 종들이라**

성 꾸란 7:194

이전에 오셨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도 숭배의 유일성의 개념에 대해 강조하셨다. 압둘라 이븐 압바스가 전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기도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알라에게 간청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직 알라에게만 간청드리십시오.”<sup>11)</sup>**

사히 수난 앓-티르미디 vol.2, p.308-309, #2043

때로는 알라 외의 대상에게 간청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 알라 외의 대상들이 기도에 응답한 것은 아니

11) An-Nawawi's Forty Hadith (English-Arabic), Damascus, Syria : The Holy Koran Publishing House, 1976, p.68-70, #19.

다. 돌이나 나무, 동물, 태양, 행성 등을 향한 기도 역시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대상들을 숭배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한 기도를 지속한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바로 알라의 무한한 자비의 속성 때문이다. 알라는 그 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주신다. 반면 진실한 신앙인의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 단 진실한 신앙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상 숭배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태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 **궤**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알라에게 기도로서 간구한 사람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세에 미리 그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내세를 위해 저장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기도와 가족관계를 절연하고자 하는 기도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제외한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교수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질문하자 알라의 사도님 **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주님께 간구하였으나 그 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히 수난 앓-티르미디 vol.3, p.188, #2852

사히 알 부카리 vol.8, p.236, #352

사히 무슬림 vol.4, p.1430, #6595

신앙인의 기도가 전부 현세에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의 기도가 모두 현세에서 응답된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시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든 기도가 현세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우상 숭

배자들은 거짓 신에 대한 숭배를 멈출 것이다.

알라 곁에 다른 대상들을 두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실상 알라에게 기도하나 단지 선지자나 신비스런 성인이나 지도자나 도사처럼 알라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 꾸란과 선지자님ﷺ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할 때 염원하는 대상은 오직 알라이어야만 한다. 선지자님ﷺ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아랍어로 두아)은 숭배입니다.”**<sup>12)</sup>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387, #1474

미쉬카아톨-마사아비흐 vol.2, p.693, #2231

다시 말해서 알라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아랍어로 앓 쉬르크 알 아크바르)으로 만일 회개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결코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알라께서 성 꾸란에 계시하신 다음 말씀을 보자.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떤 것을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것 외에는 당신이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니라**

성 꾸란 4:48 & 4:116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금지하시고 불지옥을 그의 거주지로 하셨노라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12)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리가 전하는 사도님의 또 다른 말씀인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은 숭배의 핵심이다” 라는 하디쓰는 전승경로가 약한 것으로 본다. 전승자의 한 명인 이븐 루히아의 결함 때문이다. 미쉬카-톨 마사-비-흐 vol.2, p.693, fn.2.

알라는 성 꾸란을 통해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인 용서와 관용은 알라만 홀로 수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벌을 주는 것은 그대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

선지자님ﷺ은 이 메시지를 그 분의 가족과 신앙인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전하셨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오! 압드 마나-프 부족이여! 오! 압들 무탈립의 가문이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알라의 피난처를 구하십시오. 오! 야즈-주바 이르 이븐 알 아우와암의 어머니!, 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당신 자신을 위해 알라의 피난처를 구하십시오. 나의 소유물 중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알라를 거역하여 내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4, p.479, #728

사히 무슬림 vol.1, p.136, #402

진실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직접 간구되어야 한다. 알라 외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해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르쳐온 근본 믿음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간구하는 회개는 수락될 수 없다. 알라 외 다른 것에 기도했을 경우 의로운 행위인 회개가 아닌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대죄를 짓게 되는 셈이다.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죄지은 몸으로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현혹하는 것이다. 종교적 지혜라는 가명 아래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직면하게 하고 죄악을 멈출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 본성을 상기시키며 인간을 절망 속으로 빠뜨린다. 결국 인간은 종교를 포기하고 완전한 죄악의 삶에 빠지든지 혹은 죄악에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는 속죄의 길을 택하게 된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되는 다신과 중재자로서의 성인이 보장받는 구원의 길로써 포장되어 제시된다. 더 나아가 이들 성인과 다신의 중재적 역할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으로도 내세에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짓믿음에 현혹된다. 중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당에는 이 고귀한 영혼의 중재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제시된 길은 믿음 외에 지켜야 할 조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속죄의 길처럼 보인다. 결국 선행은 그 가치를 상실하여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은 종종 진실한 믿음이 결여되고 지나친 의식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들으며 조롱받는다.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시킬 수 없나니 불신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라**

성 구관 12:87

**아브라함이 대답하더라 방황하는 자 외에는 누가 주님의 은혜를 실망시키리오**

성 구란 15 :56

**일리 가로되 스스로에 대하여 죄지은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실수들을 사하여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성 구란 39:53

기독교에서 진화된 회개의 원칙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 수많은 대중을 우상숭배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 조장한 무지와 절망의 전형적 예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단적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계명을 따르는 속죄 방법은 결국 어떤 인간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지킬 수 없는 완벽한 순종 대신 그가 택한 속죄의 방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간의 죄악을 속죄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4)</sup> 바울은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만이 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15)</sup> 바울의 교리는 후에 기독교의 신학자이자 리온의 주교인 아리나우스(125-202 C.E)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그는 이것으로 천주교 교리의 시작 체계를 발전시켰다.<sup>16)</sup> 아

13)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275.

14)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38.

15) John R. Hinnels, Dictionary of Religions, (England : Penguin Books Ltd, 1984), p,282.

우구스티누스(334-430 C.E) 또한 타락과 원죄, 예정설 교리를 지지했다. 그는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세속되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류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주장했다.<sup>17)</sup> 또한 죄는 대속되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벌을 완벽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죄받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sup>18)</sup> 중세 기독교 신학을 이끈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의견을 지지하였고 당시 이 교리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근본 원칙이 되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이 교리와 함께 속죄를 위한 고백성사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성사를 발전시켜나갔다. 초기의 성사는 복잡하고 힘들었으며 공개적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sup>19)</sup> 성사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

16)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259-260.

17) Dictionary of Religions, p.54.

18)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275.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기독교 학자들이 반발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영국의 신학자 펠라기우스(360-420 CE)는 5세기 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방종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원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능력에 따라 의무가 주어지며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악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지했으며 원죄의 교리를 부정했다. 아담이 전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좋지 못한 전례를 보였다고 생각했다. 덧붙여 은총이란 하나의 원조 같은 것이나 은총의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선언하고 416년과 418년 카르타고의 평의회에서 그에게 형을 선고했다. 황제 칙령 418년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 코데스티우스 등은 파문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되었다.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421)

19) Dictionary of Religions, p.249.

회개 : 지은 죄에 대해 슬픔을 느끼면서 차후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

고백 : 성직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함

만족 : 고해자에게 할당된 고백 성사를 해냄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이 세 가지 과정을 완벽히 수행하면 성직자에 의해 세정되는데 이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의 죄가 중재된다고 믿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완벽한 회개라도 고백 성사 없이는 죄인이 중재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불완전한 회개라도 고백 성사를 마친 죄인은 충분히 중재된다고 주장했다.<sup>20)</sup> 이는 죄인의 순수한 회개의 의도보다 형식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성직자들이 정해 놓은 고백 성사를 마치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단순한 기도나 현금을 내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고백 성사는 사적으로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1215년부터 서구 기독교들은 일 년에 최소 한 번의 고백 성사를 치렀다. 또한 '로마교황의 면죄부'라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구원 방법이 나타났는데 이 면죄부는 각 개인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미덕에서 유추한 장점들을 기록한 신용장이다.<sup>21)</sup>

20)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421.

21) 고해 신부는 면죄와 관련하여 로마 교황청의 법정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해 신부는 로마 교황청 주교 관구의 임원으로서 주교로부터 죄를 사면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Webm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p.847)



마틴 루터(1488-1540)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반발하여 교황에 대한 반항의 일조로 95개 조항을 썼다.<sup>22)</sup> 그가 주장한 핵심 원칙은 성서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보다 우위에 있으며 면죄는 업적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3)</sup> 루터는 또한 자유의지에 반대했다. 그가 주장하기를 인간은 구원과 관련 없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으나 스스로를 구원할 자유는 갖지 못한다고 했다.<sup>24)</sup>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의 연장선인 이 관점은 개신교 교회의 주요 원칙이 되었다. 결국 기독교의 두 가지 큰 흐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 회개의 방식을 차단하고 있다. 중재자를 통해 속죄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창조주를 숭배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비극에 처하게 되었다.

죄지은 보통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신비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무슬림 종파 내부에서도 생겨났다. 신비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인이라 불리는 구세주가 알 가우스 알 아드함(구원의 가장 위대한 원천이라는 뜻)이라는 가공의 임무를 맡는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가우스가 신앙인들의 죄의 일부를 짊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sup>25)</sup>

22) Dictionary of Religions, p.249-250.

23) Dictionary of Religions, p.194.

24)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321.

따라서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오면 신비주의자와 그 추종자들은 무하이유드 딘과 같은 칭호나 압둘 까디르 같은 성인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염원한다. 신앙의 이러한 타락 상태는 이미 알라의 마지막 사도님ﷺ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예언된 바 있다.

**“여러분은 선대 민족의 길을 조금씩 단계별로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도마뱀 구멍에 들어간다 해도 뒤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선지자님의 교수들)들은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선대 민족이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님께서 **“그들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답하였다.

사히 무슬림 vol.4, p.1403, #6448-6449

이슬람은 인간의 업적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업적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완전한 거짓으로 인간의 운명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 업적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은 힌두교의 카르마와 그 분파의 기본 신조다.<sup>25)</sup> 알라의 종교는 오직 알라의 은총과 자비로써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알라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순수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25) Encyclopedia of Islam, p.629, 'Alee ibn 'Uthmaan al-Hujweeree, Kashf al-Mahjoob, trans by Nicholson (London : Luzac, rep, 1976), p.214.

26) 카르마의 첫 번째 의미는 행위와 업적이다. 그 두 번째 의미는 행위의 결과 혹은 과거 행위의 전체적 결과를 뜻한다. 찬도그야(베다)는 과거 행위가 선택된 사람은 죽어 브라만 계급의 여성의 자궁에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며 과거 행위가 사악했던 사람은 죽어 자기 소속 계급에서 추방당한 여성의 자궁에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Dictionary of Religions, p.180)

## 원하는 자를 순수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현명하시니라

성 구란 24:21

아부 후라이라와 아이샤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바르고 성실하게 적절한 선행을 하며 만족하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의 업적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질문하였다. **“당신께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지자님ﷺ께서 답하셨다. **“나 또한 알라께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315, #474

사히 알 부카리 vol.8, p.313, #470

그러나 믿음과 선행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독단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사악한 불신자가 천국에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없으며 의롭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신앙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만일 불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신앙인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심판의 날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처사일 것이다. 알라의 정의와 지혜는 그 분의 은총과 자비와 함께 행사된다.

알라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가 내리는 것은 알라의 무한한 자비의 한 가지 양상이다. 그러나 훨씬 더 크나큰 자비가 내세에 의로운 신앙인들을 위

해 준비되어 있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알라는 100가지 자비를 창조하셨습니다. 99가지 자비는 보 관하시고 한 개의 자비를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316, #476

알라의 자비와 은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홀로 인간의 숭배와 헌신을 받으셔야 하는 단 한 분의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둘째, 하나님의 명에 따른 선행의 수행이다. 성 꾸란에 계시된 알라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선행을 실천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상이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보상이라 그분은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성 꾸란 30:44-45

## 제 2 장 조 건

회개란 근본적으로 죄인과 알라 사이의 개인적 문제이기는 하나 수세대를 거쳐 무슬림 학자들이 안내하는 기본적 순서 지침이 있다. 다음의 절차는 그저 강요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실행하고 진정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마지막 계시서와 마지막 사도님 ﷺ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핵심 요소다. 따라서 이를 준수함으로써 죄악의 결과에 대해 알라의 용서와 관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하나님께 수락되어야 한다. 다음의 안내 지침은 회개가 일단 수락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에 대한 숭배 행위 시 필요한 핵심 조건을 제시한다. 비록 알라께서 회개를 명하셨으나 그분은 인간의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을 영원함으로써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알라께서 회개(아랍어로 타우바)를 명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 1. 알라에 대한 영원

저급한 욕망을 극복하고 악을 멀리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든 숭배 형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알라에 대한 영원이다.

**예배는 수치와 그릇된 행위를 예방하여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심할 바 없나니**

성 구란 29:45

송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이다. 모든 선행에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아랍어로 타끄와)이 있다.

**실로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만을 생각하라**

성 구란 20:14

현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참된 평화와 평온과 만족감은 알라를 염원함으로써 얻어진다.

**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리라**

성 구란 13:28

인간의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알라를 잊게 되면 자기 자신의 저급한 욕망의 노예의 위치로 전락하여 악과 타락으로 물든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에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 이라**

성 구란 20:124

사탄의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된다. 알라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탄은 저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케 하되라 저들은 사탄의 무리들로 사탄의 무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니라**

성 구란 58:19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술과 마약과 무의미한 것으로부터 도출해 낸 광적 기쁨 등의 수단을 이용해 인간이 하나님을 염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성 구란에서 술과 도박을 금하는 이유다.

**사탄은 술과 도박으로서 너희 가운데 원한과 증오를 유발시키며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노라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성 구란 5:91

알라는 신앙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많이 그 분을 염원하라고 명하신다.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알라를 염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심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많이 염원하라**

성 구란 33:41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는 알라를 염원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사실상 회개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성 구란 3:135

숭배의 모든 행위가 그러하듯 회개 또한 오직 알라의 기쁨을 사

기 위해 엄격히 행해져야 한다. 알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성 구란 98:5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성 구란 3:135

진실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알라에 대한 사랑과 알라를 영광되게 하고 찬미하려는 의도다. 알라에 대한 사랑이란 알라께서 약속하신 보상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그분의 법을 거역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벌을 숙고했을 때 수반되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나 그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회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업이나 배우자를 구하려는 세속적 목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준둡은 선지자님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승한다.

**“칭찬 받기 위해 자기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같은 이유로 선행을 공개하는 사람은 알라에 의해 노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334, #506

남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는 알라에게 수락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러한 행위는 또 하나의 죄악으로써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알라를 염원하고 그 분께 회개으로써 귀환하면서 죄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백의 대상은 중재적 위치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알라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들 가운데 다른 주민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 자들이 있었노  
라 선한 업과 나쁜 업을 함께 쌓았으니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

성 꾸란 9:102

선지자님ﷺ께서 교우분들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아부-우 라카 비니스마티카 알라이야 와 아부-우 라카 비담  
비- 파그피틀리-  
저에게 내려진 주님의 은총에 대해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의  
죄를 고백하나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히 알 부카리 vol.8, p.212-213, #318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407, #5052

만일 알라께서 죄를 덮어주신다면 스스로 합법적 처벌을 통한 정직한 속죄 방법을 원하지 않는 한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의 공동체(아랍어로 움마)에서 자기의 죄를 말하고 다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539, #7124

회개(아랍어로 타우바)의 행위는 끊임없이 알라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숭배 행위는 전적으로 의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도문을 너무 빨리 외우거나 팔다리를 반사적으로 조심성 없이 흔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수락되지 않으며 결국 인간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 아부 후라이라는 선지자<sup>27</sup>께서 특히 이 점에 대해 강조하셨다고 전한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알라를 염원하십시오. 그러나 알라는 부주의하고 태만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히 수난 앓 티르미디 vol.3, p.164, #2766

자기의 행동에 대해 의식하면 신중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반면 의식하지 못한 상태의 행동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샤리아)에 따르면 수면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들은 죄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의 잘못과 정신이상자의 잘못과 진실로 망각하여 저지른 실수 등도 마찬가지다.<sup>2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요구된다.

27) 알리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sup>28</sup>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팬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기록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자고 있던 자가 깨어날 때이며 둘째, 아이가 자라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이며 셋째, 정신 이상자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히 수난 앓 티르미디 vol.2, p.64, #1150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 1, p.347, #1660

아부 후라이라는 알라의 사도<sup>29</sup>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실로 알라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중 실수로 인한 것과 망각으로 인한 것과 강요로 인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1, p.347, #1662

## 2. 즉시 회개

신앙인이 알라를 염원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를 원한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를 연기하는 이유는 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적 쾌락을 더 즐기고 싶은 의도적 욕망 때문이거나 또는 알라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그렇지 않을 지 확신하지 못한 무지한 의심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 죄악의 성질은 더욱 복잡한 것으로 죄인은 회개를 미룬 것에 대한 용서까지도 간구해야 한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였을 경우 알라께서 용서해주시지 못할 만큼 엄청난 죄악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라는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통해 죄에 대해 서둘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여 악을 저지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이들의 참회를 받아 주시며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성 꾸란 4:17

**서둘러 너의 주님께 회개하라**

성 꾸란 3:133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그리고 저질렀던 잘못을 지속하지 말라**

성 꾸란 3:135

미루면 미룰수록 회개는 더 힘들어진다. 죄는 가슴속에 뿌리내리고 욕망은 죄를 합리화시킬 더 큰 기회를 잡게 되어 결국 양심

까지도 지배해 버리기 때문이다. 각 영혼은 창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죄악을 구별한다. 이에 대해 알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간과 그것을 창조한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니**

성 꾸란 91:7-8

선지자님ﷺ께서는 이에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안-나우와스 이븐 사마안이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선행이 가장 좋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당신의 마음은 죄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잘못을 알게 되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sup>28)</sup>

사히 무슬림 vol.4, p.1358, #6195

와아비사 이븐 마오바드가 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알라의 사도님ﷺ께 갔더니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행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가슴의 충고를 구하십시오. 선행이란 영혼과 가슴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며 죄악이란 영혼과 가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일에 관해 당신 편을 들어준다 해도 계속해서 영혼과 가슴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미쉬카야흐 알 마사비흐 vol.2, p.845, #2774

28) 무함마드ﷺ 어록 (200선) 선정 압둘라힘 알파히미 번역 및 해설 최영길 박사 (도서출판 알림), p.67.

이 원칙에 기초하여 선지자님<sup>28</sup>은 신앙인들에게 의심스러운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다. 알 하산 이븐 알리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sup>29</sup>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의심나는 것은 단념하고 의심나지 않는 것은 지키십시오.”**<sup>29)</sup>

사히 수난 앓 티르미디 vol.2, p.309, #2045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회개를 이루는 변명의 여지는 없어야 한다. 알라는 성 꾸란을 통해 이 점을 자주 강조하신다.

**너희가 매일 무엇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어느 곳에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심이라**

성 꾸란 31:34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는 신앙인은 죄악을 깨닫는 순간 즉시 관용으로 충만하신 창조주께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알라에게 귀환하는 속도는 그의 신앙의 수준과 진실함의 정도를 말해 준다.

### 3. 죄악의 중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 회개했다면 죄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상태에서 진실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 지체 없이 과오를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곧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악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지껄이는 회개의 표현이나 용서를 구하는

29) 무함마드<sup>30</sup> 어록 (200선) 선정 압둘라힘 알파히미 번역 및 해설 최영길 박사 (도서출판 알림), p.87.

말 따위는 지각없이 이루어진 의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함이 결여된 공허한 행위다. 알라는 회개를 위해 죄악을 멈춘 경우에 용서를 베푸신다.

**그리고 저질렀던 잘못을 지속하지 말라 그들에게 보상이 있어  
주님의 관용이 있을 것이며**

성 꾸란 3:135-136

선지자 무함마드ﷺ는 세정이 필수조건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신앙인이 한 가지 죄를 지르면 그의 가슴에는 까만 반점 하나가 생겨납니다. 만일 회개하여 죄악을 멈추고 용서를 간구한다면 그의 가슴은 깨끗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죄악을 지을수록 가슴의 검은 반점의 수는 늘어갈 것이며 이것은 바로 알라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입니다 :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sup>30)</sup>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7, #3422

그러므로 죄악을 중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으며 단지 회개를 모방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알라에게 수락되지도 않고 또한 용서받을 수도 없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기독교 일부 종파의 고백성사의 성례전과 비슷하며 죄악이 가슴 속에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여지만 만들어 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을 중단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되고 의지 또한 약해진다. 그렇다보면 다른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30) 성 꾸란 83:14

마찬가지가 되고 점점 거짓으로 물들게 된다. 죄인은 작은 죄악들에 대해 무기력해지며 결국 큰 죄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그의 가슴은 점점 죄악으로 녹슬어 진실과 신앙의 빛을 차단하는 검은 베일로 덮이게 된다. 시각과 청각 기관 또한 동시에 베일로 덮여 진실이 차단되고 주변에 존재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혐오하며 심지어 의로운 말을 듣는 것조차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화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는 비방과 증상만을 일삼으며 불신자들과 그들 세계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대화의 주를 이루어 간다. 알라는 성 꾸란에 그런 사람을 진실한 신앙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묘사하신다.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마음을 붕하고 그들의 귀를 붕하고 그들의 눈을 붕하여 버릴 것이라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거늘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성 꾸란 2:6-9

**하나님께서 상거래는 허락하셨으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대금업을 단념하는 자는 그의 지난 모든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리**

## **나 고리대금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들은 지옥의 등 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라**

성 꾸란 2:275

계속하여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자신들의 고집스런 반항을 교활하게 합리화시킨다. 알라께서 성 꾸란을 통해 그들에 대해 묘사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면서 말하길 장사 또한 고리대금 과 같은 것이라**

성 꾸란 2:275

상거래와 고리대금업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으나 알라께서 상거래는 허락하시고 고리대금업은 금하신 것만 보아도 그 둘 사이의 차이점과 고리대금업의 해악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허락된 모든 것과 금지된 모든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비슷하고 포도주스는 와인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자는 모두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후자는 금지하신 것이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사고력으로 이롭고 해로운 것을 따지기 보다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알라께서 이롭고 해로운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알라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중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는다면 추**



## 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성 구란 2:278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은 갚되 부정을 저지르  
지도 말고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니라**

성 구란 2:279

### 4. 보상

만일 회개하고자 하는 죄악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면 죄를 용서받기에 앞서 침해당한 권리를 복원시켜주어야 한다. 불법으로 갈취한 재산을 반환하고 침해한 명예를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알라는 재산을 갈취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오랜 여행으로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먼지로 뒤덮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손을 하늘로 뻗어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라고 간구하고 있으나 그는 금지된 음식을 먹고 금지된 음료를 마시며 금지된 의복을 입고 금지된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어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사히 무슬림 vol.2, p.486, #2214

보상받지 못한 권리는 심판의 날 가해자의 선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어느 누구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분의 선행을 갖지 못하는 날이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선지자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것으로 형제를 억압한 사람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날은 디나르나 디르함으로 보상할 수 없는 날입니다. 억압 받고 박해 당했던 사람들은 가해자의 선행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보상할 선행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자의 죄악이 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377, #629

현세에서 박해당한 사람의 기도는 받아들여져 가해자에게 재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븐 압바스가 전승하는 바로 선지자님 ﷺ께서 무으아드 이븐 자발을 예멘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억압받은 자의 저주를 주의하십시오. 그들과 알라 사이에는 어떤 장막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366-377, #628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진실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 재산의 소유주를 모르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증되어야 하며 재산의 소유주가 알려진 상황이라면 그것은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비방과 험담과 거짓 소문으로 훼손시킨 명예를 복구해 주어야 한다.

## 5. 슬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껴야 한다. 타우바의 근본은 후회다. 후회 없는 회개는 진실성과 본질이 상실된 의미 없는 의식에 불과하다. 혼자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외관상으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비밀스럽게 죄에 대한 기억을 음미한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곧 다시 그 죄악에 빠지게 된다. 후회 없는 타우바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이 결여된 것으로 실은 어떤 세속적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 결함이 없는 사람을 요구하는 지위가 있을 때 지원자 중에는 겉으로만 우선적으로 그것을 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회개의 가장 기초 요소인 진실함이 결여된 것으로 곧 다시 같은 죄악으로 돌아가게 한다.

회개에 있어 후회가 갖는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님ﷺ이 강조하신 바다. 이븐 마으칼이 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압둘라에게 갔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후회는 곧 회개입니다.” 나의 아버지가께서 압둘라에게 물으셨다. “정말로 사도님ﷺ께서 후회는 곧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그가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 3429

진실한 후회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도를 동반한다. 미래에 다시 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어

뭇게 자기의 과오에 대해 후회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의 슬픔이라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에 불과하며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여된 것이다. 진실한 슬픔은 슬픔을 유발시킨 원인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강하고 진실한 다짐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다고 해서 앞서 행했던 후회가 진실되지 못한 것이거나 수락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때로는 유약한 시기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 단 앞서 저질렀던 정도 만큼은 아니어야 한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염원하며 죄악을 단념하는데 같은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도 안 된다. 만일 같은 강도만큼 다시 같은 죄악에 빠진다면 그때는 앞서 행했던 회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앞서 행했던 회개가 죄인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6. 선행

진실한 타우바는 가슴에서 우리나라와 표현하는 말과 함께 행동에서 나타난다.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의 과오를 수정하고 보상하여 속죄받고 싶어한다. 이에 대한 알라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죄지는 자 있다면 곧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실로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성 꾸란 6:54

만일 진실이 감추어져 죄악을 유발하며 거짓이 팽배해져 있다면 그 때의 회개는 진실을 공개함으로써 유효하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선지자 무함마드ﷺ와 이슬람에 대한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sup>31)</sup>에 대해 알라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알라의 저주와 천사들의 저주와 전 인류의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다.

### 그러나 속죄하고 개선하며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제외 되나니

31) 구약 전서 신명기 18:18의 구절은 유대백성의 형제 중에서 모세 عليه السلام 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 신명기 18:18 -〉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 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 신명기 33:1-2 -〉

창세기 21 : 21에서 ‘바란’ 이란 이스마엘 عليه السلام이 정착한 곳인 아라비아의 메카 땅임을 알 수 있으며 모세를 닮은 예견된 선지자사도 무함마드ﷺ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급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 창세기 21:21〉

이사야 42:1-13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자 그 분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계달의 자손 가운데서 날 것이라 했으니 계달은 이스마엘의 차남으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조상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뫼이요 그 다음은 계달과 아브엘과 밍삼과 - 창세기 25:1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 하박국 3:3 -〉 J.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에 따르면 데만이란 메디나 북쪽의 오아시스를 말한다. 선지자 무함마드ﷺ는 박해를 피해 메카 (바란)로부터 메디나(데만)로 이주하셨다.

이사야 21:13-17에는 이주의 자세한 묘사와 함께 적은 수의 무기를 가진 신앙인들이 계달의 험센 장사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친 사건이 묘사되어 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데다 땅의 거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락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근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일 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할 가진 온사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이사야 21:13-17 -〉

신약 전서 요한 복음 16:13에 예수 عليه السلام 이후를 위안사 (영어로는 comforter, 그리스어로는 paraclete)에 대해 예언되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독교인들은 후에 paraclete를 성령으로 해석하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를 성령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석했다. - Jamal Badawi, Muhammad in the Bible (Halifax, Nova Scotia : Islamic Information Foundation, n. d), p.3-5

## **나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라 내가 바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라**

성 구란 2:160

진실한 타우바는 속죄를 간구하는 죄인이 죄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추가적 선행을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회개의 과정 중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념된 죄악은 선행으로 대체되는 긍정적 현상을 보인다. 회개의 과정에서 행하는 선행은 속죄의 중요한 조건이다. 알라께서 성 구란에 이에 관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이며**

성 구란 25:71

### **실로 내가 관용을 베풀거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노라 그는 바른 길로 인도 받으리라**

성 구란 20:82

예를 들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귀환하려는 하나의 회개 행위다. 선지자님ﷺ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알라께서 정하신 선행을 했을 경우에만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죄악을 여전히 떨칠 수 없다. 압둘라 이븐 마우스가 전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알라의 사도님ﷺ께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우리가 자힐리야(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무지의 상태) 시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까?” 그**

**분께서 답하셨다. “누구든지 이슬람에서의 선행을 행한 자는 그 이전의 과오에 대해 계산 받지 않을 것이나 죄악을 저지른 자는 이슬람을 받아드리기 이전과 이후의 일들을 모두 계산 받을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68-69, #217&218

알라는 회개하여 죄악을 선행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약속하신다. 그들은 가장 높은 천국을 보상 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선으로 받아 주시거늘 하나님은 너그럽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성 꾸란 25:70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제외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조금도 그릇되지 않으리라**

성 꾸란 19:60

이러한 긍정적 변화 없이 오로지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에만 빠지는 행동은 죄인을 극도의 절망 상태로 몰고 간다. 그런 심약한 상태가 되면 내적, 외적으로 사탄의 속삭임과 자극에 빠져들기 쉽다. 결국 악의 세력은 그를 더 깊은 죄악으로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알라의 은총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행을 추구해야 한다. 알라만이 선행의 가치를 수배로 늘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 꾸란을 통해 알라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선을 실천한 자에게는 열배의 보상이 있으며 사악한 짓을 행한**

**그에게는 그와 같은 것 외에 다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노라**

성 꾸란 6:160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신 후 그것들을 설명하시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운 뒤 그것을 실천하였을 경우 하나님은 10배에서 700배 혹은 그 이상의 선행으로 기록하시니라. 그러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행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한 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쁜 행위로 기록하시니라**<sup>32)</sup>

사히 알 부카리 vol.8, p.329, #499

사히 무슬림 vol.1, p.75-76, #237

인간이 현명하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선행을 늘려 기록해 주시는 알라의 은총으로 인해 수많은 죄악들은 지워질 것이다. 알라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성 꾸란 11:114

이와 관련하여 전승되는 선지자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32) 무함마드 ﷺ 어록 (200선) 선정 압둘라힘 알파히미 번역 및 해설 최영길 박사 (도서출판 알림) p.189



**알라를 두려워하십시오. 죄악을 저질렀다면 서둘러 선행을 행하십시오. 선행은 죄악을 지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사히 수난 앓-티르미다 vol.2, p.191, #1618

성 꾸란에 따르면 선행함으로써 알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잘못을 저지른 후 바로 선행으로 보답하는 자는 제외라 실로 하 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성 꾸란 27:11

알라는 선행을 죄를 사해주시는 원천으로 보신다. 이슬람의 기본 기둥들은 신앙인의 의로움을 단련시키고자 설계되어 있다. 알라의 법의 규율과 정신에 따라 이슬람의 기본 기둥들을 지키는 것은 참 신앙인들의 잘못을 정화시켜 주는 높은 차원의 선행이다.

**부분세정(우두)**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알라의 종이 얼굴을 씻으면 그의 눈이 보았던 모든 죄악들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그가 손을 씻으면 손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며 그가 발을 씻으면 발이 안내하여 저지르게 된 죄악들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155, #475

## 예배(쌀라)

흐란이 전하는 바로 우스만 이븐 아프판은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가장 높으신 알라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르게 우두(부분 세정)를 행한 사람의 의무예배는 각 예배 사이에 저질렀던 죄악<sup>33)</sup>을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151, #445

## 금요합동 예배(쌀라툴 주므아)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우두를 올바르게 하고 금요합동 예배에 임하여 정숙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금요합동 예배에 3일을 더한 날까지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갈을 가지고 장난했다면 그의 속죄는 중지될 것입니다.”<sup>34)</sup>**

33) 작은 죄악들을 말한다. 아므로 이븐 알 아사스가 전하는 바로 우스만은 물을 구하면서 알라의 사도님 ﷺ의 다음 말씀을 전했다.

“정해진 기도시간이 되어 우두 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게 허리를 구부려 예배에 임하는 사람의 죄는 큰 죄악이 아닌 이상 항상 속죄될 것입니다.”

34) 선지자님 ﷺ의 생전 마스지드의 바닥은 자갈이었다. 금요일 설교(쿠트바) 시간 동안 돌맹이를 가지고 장난하거나 그것으로 째까닥 소리 내는 것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었다. 이에 선지자님 ﷺ께서는 그런 장난을 무익한 대화에 비유하시면서 금하셨다.

“이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2, p.27, chapter heading34

무슬림은 금요일 설교 시간 내내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하며 침묵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바로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맘이 설교하는 동안 형제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대화를 나눈 죄에 해당합니다.”

사히 무슬림 vol.2, p.404, #1846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286-287, #1107  
사히 알 부카리 vol.2, p.27-28

사히 무슬림 vol.2, p.407, #1868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270, #1045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70, #331

### 권능의 밤(라일라툴 까드르)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권능의 밤(라일라툴 까드르)<sup>35)</sup>에 주님의 보상을 간구하고 신앙으로써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69-70, #125

### 단식(사움)

아부 후라이라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승한다.

**“신앙으로써 라마단 달 동안 단식하며 주님의 보상을 간구하는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70, #125

### 메카로의 대순례(햏즈)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 성원(카스바)으로 순례 와서 (햏즈 기간 동안) 죄악을 범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죄 없는 순수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27, #45&46

35)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달의 마지막 10일 중 하룻밤을 말하나 그 중 어느 밤인지는 오직 알라만이 알고 계신다.

## 소순례(우므라)

아부 후라이라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두 번의 우므라를 행하면 그 두 우므라 사이의 죄는 속죄 받습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1, #1

## 7. 회개가 더 이상 수락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궁극적 정의로 인해 회개가 더 이상 수락되지 않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때 인간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회개는 더 이상 신앙에서 우리나라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무익한 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 죽음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그의 회개는 수락되지 않는다. 인간은 전 일생을 통해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는 순간까지 타우바와 속죄를 간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회개 또한 수락되지 않는다. 알라는 성 꾸란의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는 효용이 없나니 그들이 가운데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저는 지금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자들로써 죽음을 맞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성 꾸란 4:18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다음 말씀은 압둘라 이븐 우마르가 전승한다.

**“위대하시고 영광되시는 알라는 종복들이 임종하기 전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까지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3430

리야드 우스 살리히 vol.1, p.12, #18

## 종 말

종말이 오면 회개가 더 이상 수락되지 않는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으로 시작하여 종말의 주요 징후들이 나타나는 때가 되면 불신자들도 신앙을 선언하게 되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모든 신앙인들의 영혼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 전에 거두어지므로 오직 불신자들만 현세에 남아 있게 된다. 선지자님 ﷺ의 부인이신 아이샤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나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라트와 웃자<sup>36)</sup>를 숭배하기 시작할 때까지 밤과 낮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나는 말했습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알라께서 다음 구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나 불신자들이 중오하더라<sup>37)</sup> 그러니 그 때 밤과 낮의 지속 현상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알라께서 원하실 때에 일어난**

36) 알 라트는 타이프의 타퀴프 부족 혹은 나클라의 꾸라이쉬 부족이 숭배했던 바위의 형상을 한 우상이다. 알 웃자는 바트 나클라의 가타판 부족들이 숭배했던 고우 나무 우상의 이름이다. - Arabic English Lexicon, vol.2, p.2649&2032 -

37) 성 꾸란 9:33

니다. 그 때가 되면 알라는 달콤한 향기 나는 미풍을 보내어 거  
자씨만한 무게라도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데려갈 것  
이며 선함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만이 지상에 거  
주하게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선조들의 종교로 돌아가게 됩  
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506, #6945

아부 후라이라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신앙을 갖지 않았  
던 자는 신앙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얻어낼 수 없으며 신앙 또한  
그를 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 날은 해가 지는 쪽에서 해  
가 뜨는 날이며<sup>38)</sup> 적그리스도<sup>39)</sup> 와 지상의 야수<sup>40)</sup> 가 나타나는 날  
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94-95, #296

아부 후라이라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승  
한다.

“알라는 해가 서쪽에서 뜨기 전에 간구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18, #6525

리야드 우스 살리히 vol.1, p.11-12, #17

- 38)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도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여 해가 동쪽이 아닌 서쪽  
에서 뜨는 때로 종말의 주요 예증이다.
- 39) 아랍어 닷잡은 (결점을 감추기 위해 낙타를) 타르칠하다 혹은 거짓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 다잘  
라에서 파생된다. - Arabic-English Lexicon, vol.1, p.853 -  
선지자 무함마드는 ﷺ 마법같은 기술과 엄청난 권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닷잡의 도래를 예  
언하였다.
- 40) 지상의 야수(답바를 아르드)는 종말의 도래를 알려주는 주요한 예증 가운데 하나다. 성 구안의  
다음 구절을 보자.  
저들 위에 말씀이 이행될 때 대지로부터 야수를 끌어내어 그 짐승으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  
지 아니했던 자들을 저주하게 하리라

### 제 3 장

## 속 죄 의 방 법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명에 따라 신앙인들은 모든 죄악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임종하였다 해도 알라는 인간의 죄악의 전부나 일부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다. 만일 알라께서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 죄악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그를 따라 믿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 날 너희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너희로 하여금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실 것이니라**

성 꾸란 66:8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초기 민족 중에서)<sup>41)</sup> 한계를 넘는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이 죽은 뒤 시신을 화장시켜 유골의 재의 반은 대지에, 반은 바다에 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바로) 알라께 맹세하건데 만일 알라께서 그를 잡으신다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많은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세상을 떠자 가족들은 그의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는 대지와 바다에 명령하시

41) 이 괄호안의 설명은 아부 사이드 알 쿠드리가 전한 것이다. - 사히 무슬림 vol.4, p.1439, #6640.

**어 유골의 재를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알라께서 그에게 그런 짓을 한 이유를 물으시자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당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당신은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알라께서 그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8, #66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께서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바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쉬르크의 죄다. 쉬르크란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두어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하려 한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에 비유하려 하는 자는 죄인이라**

성 꾸란 4:48

따라서 치명적인 죄인 쉬르크를 저지른 자는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서둘러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두어 섬기는 사람들은 쉬르크적 믿음만이 구원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사탄에 의해 현혹되어 있다.

## **회개와 선행**

죄에 대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속죄하는데 있어 충분한 요소다.



##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이며

성 꾸란 25:71

압둘라 이븐 마수드가 전승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알라의 사도님ﷺ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는 메디나의 번두리 지역에서 어떤 여인과 장난하다가 그만 간음에 준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응당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에 우마르가 말했다.

“알라께서 당신의 잘못을 덮어 주셨으니 당신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어야 합니다.” 알라의 사도님ﷺ께서는 이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이 자리를 뜨고 떠나자 알라의 사도님ﷺ은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다. 그런 후 그에게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암송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루 낮 시간과 처음과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하고 밤이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sup>42)</sup>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그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답하셨다.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sup>43)</sup>

사히 무슬림 vol.4, p.1442, #6658

만일 알라에 대한 의무에 있어 순전히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라면 알라는 이에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든지 혹은 같은 유형의 다른 의무 행위로서 대체할 것을 명하신다. 예를 들어 의무 단식을 해야 하는 라마단 달의 낮 동안 먹고 마시는 실수를 범했다

42) 성 꾸란 11:114

43) 사히 무슬림 vol.4, p.1442, #6655은 그가 여인에게 입맞춤을 했다고 언급한다.

면 그것은 단식을 깨뜨리는 죄악으로 간주된다. 만일 실수로 음식과 음료를 섭취했다면 그것은 용서될 것이며 단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부 후라이라가 선지자님ﷺ의 다음 말씀을 전승한다.

**“누군가 망각하고 먹고 마셨다 해도 끝까지 단식을 마쳐야 합니다. 그에게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분은 알라이시기 때 문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85, #154

다섯 번의 의무 예배를 정해진 시간 내 하지 않는 것 또한 대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예배를 빠뜨렸을 경우 차후에 보충하면 죄가 부여되지 않는다.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전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있고 있던 예배가 생각났다면 빠진 예배를 보충해야 합니다. 예배를 보충하는 것 외에 다른 속죄의 방법(카프파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암송하셨다. **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만을 생각하라**<sup>44)</sup>

사히 알 부카리 vol.1, p.328, #571

## 속죄의 방법(카프파라)

여러 경우에 있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속죄의 방법들을 정해주셨다.<sup>45)</sup> 그러한 행위들을 모아 카프파라라고 부른다.<sup>46)</sup> 이는 덮다, 감추다, 속죄하다라는 뜻의 카프파라 유카프피

44) 성 꾸란 20:14

45) Muhammad Qaf'aji and Hamid Qunaibi, Dictionary of Islamic Legal Terminology (Arabic-English) Beirut : Daran-Nafees, 1st ed, 1985, p.382.

46) Arabic-English Lexicon, vol.2, p.2620.

루(كَفْرِيكْفِر)라는 동사에서 파생된다. 속죄를 위한 다음의 추가 행위는 알라를 위해 해야 할 의무들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와 인간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혹은 사고로 침해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 규범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을 저지하고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1) 의도적으로 라마단 달의 단식을 깨뜨린 경우

라마단 달 낮 시간 동안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은 노예 한 명을 해방시키거나 혹은 두 달 동안 연속해서 단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식을 깨뜨린 날짜만큼 60명의 가난한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아부 후라이라의 전승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선지자님ﷺ과 함께 앉아 있었을 때 어떤 남자가 와서 말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는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답했다. “저는 단식 중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노예 한 명을 해방시킬 대가를 지불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답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선지자님ﷺ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신은 두 달 동안 연속해서 단식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답했다. “아닙니다.” 이에 선지자님ﷺ은 침묵을 지키셨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종려나무 열매로 가득한 커다란 바구니 하나가 선지자님ﷺ께 도착했다. 선지자님ﷺ께서 물으셨다. “질문했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님ﷺ은 그 바구니를 건네주시며 자선으로 사

용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제가 이 종려나무 열매를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해야 합니까? 오! 알라의 사도님! 알라께 맹세하건데, 메디나에서 저희 가족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님ﷺ은 그 사람의 대답에 이가 보일 정도로 웃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가져가 당신의 가족을 부양하십시오.”

사히 알 부카리 vol.3, p.89, #157

## (2) 핫즈 시 의도적으로 살생한 경우

이흐람이라는 성스런 상태로 메카 순례에 임한 사람은 메카 성역 내 동물의 살생이 금지된다.<sup>47)</sup> 나무를 해치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만일 의도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냥했던 동물에 비등한 동물을 사서 희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양 한 마리는 염소 한 마리에 비등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동물의 가치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혹은 대접해야 할 가난한 사람의 가치에 비등한 날만큼 단식해야 한다.<sup>48)</sup> 알라께서 성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 믿는 자들이여 순례 중에 있을 때는 짐승을 살생하지 말라 고의

47) 순례 중 메카 안의 성역이라 할지라도 식용을 위해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로운 동물과 곤충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금기 사항에서 제외된다. 선지자님ﷺ의 부인이신 아이샤와 하프사께서 전승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흐람 상태라 할지라도 없애야 할 다섯 가지 해로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갈과 쥐와 독수리와 얼룩무늬 까마귀와 게걸스럽게 먹는 개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2, p.591-592, #27198,2725

아이샤의 전승에 따르면 뱀도 포함된다.

48) Muhammad al-Qurtubee, al-Jaami' li Ahkaam al-Qur'aan (Cairo : Daar al-Kutub al-Misreeyah, 2nd ed, 1959), vol.6, p.316.

주 : 만일 비등한 동물이 없으면 살생한 동물의 가치를 환산해 그것으로 음식을 사서 메카의 가난한 사람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로 살생한 자가 있었다면 속죄해야 되나니 너희가 살생한 것과 같은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너희 가운데 공정한 두 사람에게 의해 판결되므로 카스바에서 제물로 바친 후 굶주린 자들을 배불려 주어 속죄하고 또는 단식을 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맛보는 것으로 속죄하라

성 꾸란 5:95

### (3) 핫즈 시 머리를 일찍 깎은 경우

핫즈의 세 번째 날 머리카락을 자르고 미는 의식이 행해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찍 머리를 깎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식을 위반하는 행위다. 만일 두피의 감염을 우려하여 그렇게 했다면 속죄를 위한 단식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희생시켜야 한다. 다음의 성 꾸란 구절에 속죄의 기본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너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 때는 머리를 깎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제물을 바쳐 보상하도록 하라

성 꾸란 2:196

카으브 이븐 우즈리는 알라의 사도님<sup>ﷺ</sup>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머릿속의 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카으브가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알라의 사도님<sup>ﷺ</sup>께서 말씀하셨다.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3일 간 단식하거나 혹은 6명의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 양한 마리를 희생시키십시오.”

사히 알 부카리 vol.3, p.24, #41

### (4) 지하르 형태로 이혼한 경우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제 어머니 등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혼하곤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노예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도 재혼할 수 없었으며 남편은 결혼의 여러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알라는 노예 한 명을 사서 해방시키라고 명하였다.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보자.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자기 자신의 말을 취소할 때 그는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느니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든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성 꾸란 58:3

**그러나 노예가 없는 자는 동침하기 전에 계속하여 두 달을 단식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는 육십명의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의 규범이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뿐이라**

성 꾸란 58:4

### (5) 의도적으로 맹세를 위반한 경우<sup>49)</sup>

아내를 멀리하겠다고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알 엘라라고 한다. 그러한 맹세를 하면 아내를 다시 데려오든지 혹은 이

훈해야 한다.<sup>50)</sup> 이에 대해 알라께서 성 꾸란을 통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 만일 그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성 꾸란 2:226

엘라 혹은 어떤 의도적 맹세를 깨뜨린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10명의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제공해야 하

49) 맹세(알-아민)에 대한 이슬람적 개념은 대화 시 강조하기 위해 알라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알라의 속성을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 알라와 그분의 속성 외의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우마르가 전하는 바로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무리의 사람들 중 우마르 이븐 알 카탐을 만나셨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들었다. 선지자님 ﷺ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알라는 당신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맹세해야 할 경우에는 알라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416-417, #641  
사히 무슬림 vol.3, p.875, #4038

맹세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의도적인 것이며 둘째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성 꾸란 5:89참조) 부주의로 인한 맹세는 단순히 말하는 습관으로 인한 것이다.

아이샤의 전승에 따르면 너희의 맹세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하지 아니하시나 (성 꾸란 2 : 225) 라는 성 꾸란 구절은 ‘아닙니다. 알라께 맹세하건데’ 혹은 ‘그렇습니다. 알라께 맹세하건데’ 와 같은 것이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427, #656  
수난 아부 다우드, vol.2, p.924, #3248

이런 종류의 맹세는 죄악이 아니며 그에 대한 속죄 또한 필요 없다.

반면 의도적 맹세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하여 의도를 품은 것이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데, 내가 통과한다면 나는 원숭이의 삼촌이 될 것이다’ 와 같은 형태의 맹세는 의도적 맹세의 부류에 들지 않는다. 원숭이의 삼촌이 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도적 맹세를 깨뜨리면 그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정직한 맹세는 깨지는 것이 아니므로 속죄 또한 필요하지 않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위증은 알 아민 알 가무스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진실한 회개만이 속죄의 조건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압둘라 이븐 아르가 전하는 선지자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와 부모님에 대한 불효, 자살 행위와 그리고 위증죄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434-435, #667

-무함마드 ﷺ 어록 (200선) 선정 압둘라힘 알파히미 번역 및 해설 최영길 (도서출판 알림) p.97-

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 만일 이 두 가지를 행할 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단식해야 한다. 알라는 다음의 성 꾸란 구절에 속죄의 행위를 명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헛된 약속보다는 너희의 의도와 마음을 계산하시니라 그에 대한 속죄로써 너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열 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되나니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삼일간 단식을 하라 그것이 네가 사람들에게 취한 헛된 약속에 대한 속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약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징표를 설명하시어 너희가 은혜가운데 있게 하리라**

성 꾸란 5:89

이 구절은 신앙인에게 맹세를 지킬 것을 촉구하며 특히 선행에 대한 맹세의 실천을 중시한다. 반면 금지된 것이나 혐오스런 것에 대한 맹세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이혼을 바라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그에게 아내가 금지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실행에 옮기는 것은 금지되며 또한 속죄가 필요하다. 선지자님ﷺ의 교우이신 이븐 압바스의 말씀인 즉 어떤 사람이 아내를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해야 하며 **“여러분이 따라야 할 훌륭한 본보기는 알라의 사도님ﷺ이십니다.”**<sup>51)</sup> 라고 덧붙였다.

선지자님ﷺ의 다음 말씀은 이므란 이븐 후세인이 전한다.

**“알라를 거역하는 행위에 대한 맹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sup>52)</sup>



아부 후라이라의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님ﷺ께서 아들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어떤 노인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답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들은 저 노인의 아들들이며 노인은 (카스바까지 걸어가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노인에게 말씀하셨다. **“탈 것을 타고 가십시오. 알라는 당신과 당신의 맹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3, #4020

아부 다우드 vol.2, p.936, #3295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속죄는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속죄 방법과 같다. 우크바 이븐 아미르는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맹세에 대한 속죄는 서약에 대한 속죄와 같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4, #4034

선지자님ﷺ은 맹세한 것보다 더 의로운 경우가 분명한 경우에 맹세를 깨뜨리고 속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디 이븐 하

51) 사히 무슬림 vol.2, p.760, #3494-3495.

주 : 서약(까삼 혹은 할라프)은 알라의 이름으로 무언가에 대해 맹세하는 것이며 알라 외의 것으로 서약하는 것은 금지된다. 맹세(나다르)는 알라의 이름으로 행하며 알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을 경우 일정 승배행위를 약속하는 것이다. 나다르는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는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1-872, #4023

비슷한 내용이 이븐 우마르에 의해서도 전승된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448, #684  
수난 아부 다우드 vol.2, p.933, #328

52) 아이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449-450, #687

팀이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맹세를 하였으나 그 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맹세를 깨뜨리고 더 나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sup>53)</sup>

사히 무슬림 vol.3, p.878, #4057

## (6) 우발적 살인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에 관해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진실로 실수와 망각과 강요로 한 일에 대해 '알라'는 나의 추종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1, p.347, #1662

그러나 인간 사회는 그 성격상 고인의 생명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함께 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을 요구한다. 알라는 신앙인 노예 한 명을 해방시키고 디야라고 불리는 금전적 지불로써 속죄할 것을 명하셨다.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국가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두 달 동안 연속해서 단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을 통해 명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믿는 자가 믿는자를 살해하지 아니하니라 실수는 불가항력이나 이 때는 믿음이 강한 한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상하라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를 용서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교전상태에 있는 적군 중에 믿는 자가 실수**

53) 압둘 라흐만 이븐 사무라는 비슷한 내용의 하디쓰를 전한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469, #715  
수난 아부 다우드 vol.2, p.990, #3271

로 살해되었다면 한명의 노예 해방으로 충분하며 그가 상호동맹관계에 있는 부족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그의 가족에게 보상하고 한명의 민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킬 것이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두달 동안 단식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성 규관 4:92

## (7) 법에 따른 처벌

신앙인이 알라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슬람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벌을 감당하는 것은 죄악에 대한 속죄다. 우바다 이븐 앓싸미트가 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알라의 사도님ﷺ은 우리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으셨다. “우리는 어떤 것도 알라에 비유하지 않을 것이며 흠치지 않을 것이며 간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식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중상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알라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속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께서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알라의 처분을 따를 것입니다. 알라는 뜻하시는 대로 그를 벌하시거나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509-510, #775

사히 알 부카리 vol.8, p.518, #793

사히 무슬림 vol.3, p.925, #4237

이므란 이븐 후세인이 전하는 바로 주하이나 부족 출신의 한 여성이 간음으로 인해 임신하고서 알라의 사도님 ﷺ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는 마땅히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알라의 사도님 ﷺ은 그녀의 보호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녀를 잘 보살피고 출산하거든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난후 알라의 사도님 ﷺ은 그녀에게 형을 선고하시고 그녀를 묶어 돌로 때리는 사형을 집행하셨다. 알라의 사도님 ﷺ이 장례 예배를 하시자 우마르가 질문하였다. **“그녀는 간음을 저질렀는데도 당신께서는 그녀를 위한 장례 예배를 치러주십니까?”** 알라의 사도님 ﷺ이 이에 답하셨다. **“그녀의 회개는 너무나 훌륭한 것으로 만일 그 회개를 70명의 메디나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충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권능으로 충만하신 알라께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녀의 회개보다 더 나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사히 무슬림 vol.3, p.917, #4207

## (7) 생리 중 성관계

성 꾸란을 통해 알라는 여성의 생리 시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신다.(성 꾸란 2:222) 만일 그렇게 했다면 큰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대한 속죄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으로써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 알라의 사도님 ﷺ의 다음 말씀은 아내의 생리 중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관련된 것으로 이븐 압바스의 전승을 따른다.

“그는 1디나르<sup>54)</sup> 혹은 반 디나르를 자선으로 써야 하니라.”<sup>55)</sup>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66, #264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51, #237

---

54) 당시의 1디나르는 오늘날 금 4.25g과 비등한 가치를 갖는다. - Dictionary of Islamic Legal Terminology, p.212 -

55) 주 : 이븐 압바스의 전승이다. : “만일 생리의 초기라면 1디나르로써 속죄하며 생리가 끝날 무렵이라면 반 디나르로써 속죄합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66, #265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51, #238

## 제 4 장 회 개의 기도 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자주 진실한 회개의 기도에 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기도문은 선지자들이 계시 받은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기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나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성 꾸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가르침을 따른 기도문은 어떤 개인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기도문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월등히 훌륭하다. 더구나 알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숭배의 행위로써 무한한 보상을 약속받는다.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다음 말씀은 이븐 마스우드 가 전승한다.

**“알라의 계시록의 한 단어를 읽는 사람은 한 가지 선행을 했다고 기록되며 한 가지 선행은 10배의 가치로 늘려집니다. 알리 프 램 밌는 한 단어가 아니라 알리프가 하나의 단어요, 램이 하나의 단어요, 밌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수난 앓 티르미디 vol.3, p.9, #2327

또한 선지자님 ﷺ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숭배의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 보상이 따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 꾸란에 언급된 알라의 인도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선지자가 너희에게 준 것은 수락하고 금기한 것은 삼가  
라

성 구란 59:7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훌륭한 모범이  
있었거늘 이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섬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라

성 구란 33:21

따라서 신앙인은 알라와 그 분의 사도님<sup>들</sup>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을 가능한 많이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인간에 의해 고  
안된 어떤 형식보다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가장 훌륭한 회개의 기도문

샷다드 이븐 아우스는 선지자님<sup>들</sup>의 다음 말씀을 전승한다 :

“용서를 간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알라훔마 안타 랍비 라- 일라-하 일라-안트 안타 칼라끄타니-와  
아나- 아브두카 와 아나-알라- 아흐디카 와 와으디카 마스타파  
스투 아우-두 비카 민 샤흐리마- 쇠나스투 아부-우 라카 비니으  
마티카 알라이야 와 아부-우 라카 비담-비- 파그피를 리-. 파 인  
나후- 라- 야그피르드두누-바 일라-안트

오! 알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당신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  
니다. 당신께서 저를 창조하셨으니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명을 최대한 따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사악함으로부터 주님  
의 보호를 구하며 저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은총에 대해 주님 앞  
에 감사드리며 저의 죄악들을 고백하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

옵소서. 진실로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  
나이다.<sup>56)</sup>

선지자님<sup>57)</sup>께서 말을 이으셨다 :

누구든지 이를 확고히 믿고 낮에 말하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죽  
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이를 확고히 믿고 저녁에 말하다가 다음  
날 아침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맞는 사람은 천국의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12-213, #318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407, #5052

### 성 꾸란에서 인용한 기도문

랍바나- 라- 투아- 키드나- 인 나씨-나- 아우 아크타나-

랍바나- 왈 라- 타흐밀 알라이나- 이스란 카마- 하말타후- 알랄  
라디-나 민 파블리나-

랍바나-왈라-투함밀나- 말-라- 파파타 라나-비흐

와스푸 안나- 와그피르라나-와르함나-

안타 마울라-나- 판-수르나- 알랄 파우밀 카-피리-인

주여 망각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  
서 주여 저희의 선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럼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지우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  
복을 내려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56) 비 아랍 무슬림은 이 기도문을 의미와 함께 아랍어로 외우도록 권장된다. 아랍어로 암기하는 것은 계시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계시되었을 때처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랍어는 전 세계 무슬림을 하나로 엮어주는 언어로 매일 정해진 예배와 예배시간을 알릴 때 사용된다.



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성 구란 2:286

랍바나-그피르 라나-두누-바나- 와 이스라-파나-피-암리나-  
와 샴비트 아끄다-마나-완수르나-알랄파우밀 카-피리-인  
주여 저희의 죄와 과오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발길을 고정  
시켜 주옵시고 불신자들의 무리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  
서

성 구란 3:147

랍바나- 인나나- 싸미으나- 무나-디-야이- 유나-디-릴이-마니  
안 아-미누- 비랍비쿰 파 아-만나-  
랍바나 파그피르 라나- 두누-바나- 와 카프피르 안나- 사이이아  
-티나-  
와 타와프파나-마알아브라-르  
주여 저희는 주님을 믿으라 라는 믿음의 부름을 듣고 믿었나이  
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속죄하여 저희가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도록하여 주소서

성 구란 3:193

랍바나-달람나-안푸싸나-  
와 일람 타그피르라나- 와 타르함나-  
라 나쿠-난나 미날 카-시리-인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속되게 하였나이 다 당신께서 저희  
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아니 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 한다면 저희는 잃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 구란 7:23

랍비그피르 와르함 와 안타 카이루르 라-히미-인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이야말로 은  
혜를 베푸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옵니다

성 구란 23:118

랍바나그피르 라나- 왈 리 이크와-니날라디-나 짜바꾸-나- 빌  
이이마니

왈 라- 타즈알 피- 꼴루-비나- 길랄릴라디-나 아-마누-

랍바나- 인나카 라우-푸르라히-임

주여 저희와 저희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어 주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중소가 남  
아 있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실로 당신은 친절하시고 자비  
로우신 분이십니다

성 구란 59:10

랍바나- 알라이카 타와크칼나- 와 일라이카 아나브나- 와 일라  
이칼 마시-르

랍바나- 라- 타즈알나- 피트나탈릴라디-나 카파루-

와그피르라나- 랍바나- 인나카 안탈아지줄하키-임

주여 실로 저희는 당신만을 의지하오며 당신에게 회개하나이  
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주여 저희가 불신  
자들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용서하  
여 주옵소서 실로 당신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성 구란 60:4-5

랍바나- 아트밈 라나- 누-라나- 와그피르 라나-

인나카 알라- 쿨리 샤이인 파디-르

주여 광명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성 구란 66:8

## 순나를 따른 기도문

선지자님들은 매일 다섯 번의 기도를 마친 후 암송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문을 가르쳐주셨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송하는 바로 알라의 사도님들은 타크비르<sup>57)</sup> 후 성 구란을 암송하시기 전 잠시 침묵을 지키셨는데 그 이유를 질문 받았다.

“타크비르한 후 성 구란 구절을 암송하시기 전까지 잠깐 멈추셔서 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님들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알라훔마 바-이드 바이나 와 바이나 카타-야-야 카마- 바-아드  
타 바이날마슈리퀴 알 마그리브

오! 알라! 당신께서 동쪽과 서쪽을 서로 멀리 두신 것처럼 죄악  
으로부터 저를 멀리 두어 주십시오.

알라훔마 나끄파니- 민 카따-야-야 카마- 유나끄파스사우불아  
브야두 미나드 다나스

오! 알라! 하얀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듯 저에게서 죄악을 떨어  
뜨려 주시옵소서.

알라훔마그실니- 민카파이야야 빌마-이 와스살지 알 바라드

오! 알라! 비와 눈과 우박이 올 때마다 저의 죄를 씻어 주시  
기를 바랍니다.”

57) 예배 시작 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라고 말하는 것

사히 알 부카리, vol.1, p.398, #711  
사히 무슬림, vol.1, p.295, #1245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200, #780

아이샤가 전하는 바로 선지자님 ﷺ께서 루쿠(반절)와 쑤주드(절)하시며 자주 이렇게 암송하셨다 :

**스부하-나칼라훤마 랍바나- 와비함디크 알라훤마그필리리  
영광받으소서. 오! 알라! 우리의 주님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오! 알라!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히 알 부카리, vol.1, p.434, #781  
사히 무슬림, vol.1, p.254, #981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224, #876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바로 알라의 사도님 ﷺ이 쑤주드(절)하시며 다음과 같이 암송하셨다 :

**알라훤마그피를리- 담비- 클라후 디끄파후 와 질라후 와 아우  
알라후 와 아-키라후 알라- 니야타후 와씨르라흐  
오! 알라! 크고 작은 저의 죄악, 먼저 저지른 것과 나중에 저지른 것,  
알려진 것과 숨기고 있는 저의 모든 죄악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히 무슬림, vol.1, p.254, #980  
사히 아부 다우드, vol.1, p.224, #877

이븐 압바스가 전하는 바로 알라의 사도님 ﷺ이 첫 번째 쑤주드와 두 번째 쑤주드 사이 잠깐 앉으셔서(줄루쓰) 다음과 같이 암송하셨다고 한다 :

**알라훔마그필르 리- 와르함니- 와흐디니- 와 아-피니-와르주끄  
니-**

**오! 알라!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  
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217, #849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1, p.148, #732

아부 바끄르가 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알라의 사도님ﷺ께 예배시 암송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  
쳐 달라고 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

**알라훔마 인니-달람투 나프씨- 둘만 카시-라-**

**오! 알라! 진실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왈 라-야그피루드두누-바 일라- 안트**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나이다.**

**파그피를리-마그피라탐 민 인디카 와르함니-**

**저에게 당신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인나카 안탈 가푸-루르라히-임**

**실로 당신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1, p.442, #796

사히 무슬림, vol.4, p.1419-1420, #6533

타우반이 전하는 바로 알라의 사도님ﷺ이 예배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세 번 암송하시고 용서를 간구하셨다 :

**알라훔마 안타쓰쌀라무 와 민카쓰쌀람**

**오! 알라! 당신은 평화이시며 당신만이 평화의 근원입니다.**

**타바-라그타 야-달 잘랄-리 왈 이크람**

**찬미받으소서. 오!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알 왈리드가 알 아우자이에게 물어보았다. “용서는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요?” 그가 답했다. “이렇게 말하세요” :

**아스타그피를라 아스타그피를라**

**저는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나이다. 저는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나이다.**

사히 무슬림, vol.1, p.292, #126

이븐 마수드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

**“누구든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자는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아스타그피를랄라디-라- 일라-하 일라- 후왈하이울과이움 와 아투-부 일라이흐**

**저는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나이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알라는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분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395, #1512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스브하-날라-히 와 비함디흐(알라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찬미는 알라께 있습니다)라고 100번 말하는 자**

는 그의 죄가 바다 위의 거품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77, #414

사히 무슬림, vol.4, p.1415, #6508

아부 말리크 알 아쉬자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 누구든지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마다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는 그에게 예배하는 법과 다음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알라훔마그피를리- 와르함니- 와흐디니- 와르주끄니**

**오! 알라!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옵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히 무슬림, vol.4, p.1416, #6515&6515

아부 무사 알 아쉬아리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다.

**알라훔마그피를리- 카피-아티- 와 자흘리- 와 이스라-피- 피-암리- 와 마-안타 아을라무 비히 민니**

**오! 알라! 저의 잘못과 무지와 남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것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라훔마그피를리- 지드다이 와 하즐리 와 카파이- 와 암디- 와 쿨루달-리카인디-**

**오! 알라! 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가볍게, 뜻하지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알라훔마그피를리- 마-파드담투 와 마- 아크카르투 와 마- 아스**

**라르투 와 마-아스란투 와 마-안타 아슬라무 비히 민니-**

**오! 알라! 제가 비밀스럽게 혹은 대중 앞에 저지른 과거와 미래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 당신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안탈무파드다무 와 안탈 무아크키루 와 안타 알라-쿨라 샤이인 파다-르**

**당신은 선구자이시며 언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71-272, #407

사히 무슬림, vol.4, p.1424-1425, #6563

아부 바르자 알 아슬라미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모임에서 일어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전한다.

**스브하-나갈라훤마 와 비함디카**

**모든 영광을 알라께 드립니다. 모든 찬미는 알라에게 있습니다.**

**아쉬하두 알라 일라-하 일라-안트**

**당신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나이다.**

**아쓰타그피루크 와 아투-부 일라이크**

**당신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당신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지금하신 기도는 과거에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분께서 답하였다.

**“모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355, #4841



## 하디쓰 목록

“가장 높으신 알라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르게 우두(부분 세정)를 행한 사람의 의무예배는 각 예배 사이에 저질렀던 죄악을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151, #445

“권능의 밤(라일라톨 까드르)에 주님의 보상을 간구하고 신앙으로써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69-70, #125

“그는 1디나르 혹은 반 디나르를 자선으로 써야 하니라.”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66, #264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51, #237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알라를 염원하십시오. 그러나 알라는 부주의하고 태만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히 수난 앓 티르미디 vol.3, p.164, #2766

“기도 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알라에게 간청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직 알라에게만 간청드리십시오.”

사히 수난 앓-티르미디 vol.2, p.308-309, #2043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아랍어로 두아)은 숭배입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387, #1474

미쉬카아톨-마사아비흐 vol.2, p.693, #2231

나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라트와 옷자를 숭배하기 시작할 때까지 밤과 낮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나는 말했습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알라께서 다음 구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나 불신자들이 증오하더라 그러니 그 때 밤과 낮의 지속 현상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알라께서 원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그 때가 되면 알라는 달콤한 향기 나는 미풍을 보내어 겨자씨만한 무거운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데려갈 것이며 선함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만이 지상에 거주하게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선조들의 종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506, #6945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압둘라에게 갔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후회는 곧 회개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압둘라에게 물으셨다. “정말로 사도님 ﷺ께서 후회는 곧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그가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 3429

“나의 공동체(아랍어로 움마)에서 자기의 죄를 말하고 다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539, #7124

“누군가 망각하고 먹고 마셨다 해도 끝까지 단식을 마쳐야 합니

다. 그에게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분은 알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85, #154

“두 번의 우므라를 행하면 그 두 우므라 사이의 죄는 속죄 받습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1, #1

“만일 여러분이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알라는 여러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는 백성이 될 것이며 알라는 이에 용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6-1437, #6620-6622

“맹세에 대한 속죄는 서약에 대한 속죄와 같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4, #4034

“맹세를 하였으나 그 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맹세를 깨뜨리고 더 나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8, #4057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것으로 형제를 억압한 사람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날은 디나르나 디르함으로 보상할 수 없는 날입니다. 억압 받고 박해 당했던 사람들은 가해자의 선행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보상할 선행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자의 죄악이 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377, #629

“머릿속의 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카으브가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알라의 사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3일 간간 단식하거나 혹은 6명의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양 한 마리를 희생시키십시오.”

사히 알 부카리 vol.3, p.24, #41

“모든 인간은 원선(피트라)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도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새끼 낳는 과정을 도와줄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새끼에 소인을 찍어 두기 전에 이미 소인이 찍혀져 나온 새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히 알 부카리 vol.8, p.389-390, #597

사히 무슬림 vol.4, p.1398, #6423

“바르고 성실하게 적절한 선행을 하며 만족하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의 업적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질문하였다. “당신께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지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알라께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315, #474

사히 알 부카리 vol. 8, p.313, #470

“선행이 가장 좋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당신의 마음은 죄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잘못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358, #6195

“신앙인이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의 가슴에는 까만 반점 하나가

생겨납니다. 만일 회개하여 죄악을 멈추고 용서를 간구한다면 그의 가슴은 깨끗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죄악을 지을수록 가슴의 검은 반점의 수는 늘어갈 것이며 이것은 바로 알려께서는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입니다 :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7, #3422

“세 가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신앙을 갖지 않았던 자는 신앙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얻어낼 수 없으며 신앙 또한 그를 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 날은 해가 지는 쪽에서 해가 뜨는 날이며 적그리스도와 지상의 야수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94-95, #296

“신앙으로써 라마단 달 동안 단식하며 주님의 보상을 간구하는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70, #125

“아담의 자손을 위해 황금으로 가득 찬 계곡이 있더라도 인간은 또 다른 계곡을 원할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이 종료될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96-297, #444&446

사히 무슬림 vol.2, p.415, #3413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5, # 3413

리아드-우스-살리힌 vol.1, p.27-28, #23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나 그 중 끊임없이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합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3428

“알라는 해가 서쪽에서 뜨기 전에 간구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18, #6525  
리야드 우스 살리한 vol.1, p.11-12, #17

“알라는 100가지 자비를 창조하셨습니다. 99가지 자비는 보관하시고 한 개의 자비를 그 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316, #476

“알라를 거역하는 행위에 대한 맹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2-873, #4027

“알라를 두려워하십시오. 죄악을 저질렀다면 서둘러 선행을 행하십시오. 선행은 죄악을 지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사히 수난 앓-티르미디 vol.2, p.191, #1618

“알라에게 기도으로써 간구한 사람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세에 미리 그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내세를 위해 저장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기도와 가족관계를 절연하고자 하는 기도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제외한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교우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질문하자 알라의 사도 ﷺ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주님께 간구하였으나 그 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히 수난 앓-티르미디 vol.3, p.188, #2852

사히 알 부카리 vol.8, p.236, #352

사히 무슬림 vol.4, p.1430, #6595

“알라의 계시록의 한 단어를 읽는 사람은 한 가지 선행을 했다고

기록되며 한 가지 선행은 10배의 가치로 늘려줍니다. 알리프 램 밭 은 한 단어가 아니라 알리프가 하나의 단어요, 램이 하나의 단어요, 밭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수난 앓 티르미디 vol.3, p.9, #2327

알라의 사도님 ﷺ께 갔더니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행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가슴의 충고를 구하십시오. 선행이란 영혼과 가슴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며 죄악이란 영혼과 가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일에 관해 당신 편을 들어준다 해도 계속해서 영혼과 가슴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미쉬카아흐 알 마사비흐 vol.2, p.845, #2774

알라의 사도님 ﷺ은 우리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으셨다. “우리는 어떤 것도 알라에 비유하지 않을 것이며 흠치지 않을 것이며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식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중상 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알라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속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께서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알라의 처분을 따를 것입니다. 알라는 뜻하시는 대로 그를 벌하시거나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509-510, #775

사히 알 부카리 vol.8, p.518, #793

사히 무슬림 vol.3, p.925, #4237

“알라의 종이 얼굴을 씻으면 그의 눈이 보았던 모든 죄악들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그가 손을 씻으면 손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며 그가 발을 씻으면 발이 안내하여 저지르게 된 죄악들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155, #475

어떤 사람들이 알라의 사도님 ﷺ께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우리가 자힐리아(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무지의 상태) 시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까?” 그 분께서 답하셨다. “누구든지 이슬람에서의 선행을 행한 자는 그 이전의 과오에 대해 계산 받지 않을 것이나 죄악을 저지른 자는 이슬람을 받아드리기 이전과 이후의 일들을 모두 계산 받을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1, p.68-69, #217&218

어떤 사람이 알라의 사도님 ﷺ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는 메디나의 변두리 지역에서 어떤 여인과 장난하다가 그만 간음에 준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응당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에 우마르가 말했다. “알라께서 당신의 잘못을 덮어 주셨으니 당신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어야 합니다.”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는 이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이 자리를 뜨고 떠나자 알라의 사도님 ﷺ은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다. 그런 후 그에게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암송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루 낮 시간과 처음과 마지막 시



간에 예배를 하고 밤이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그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알라의 사도님께서께서 답하셨다.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42, #6658

“여러분은 선대 민족의 길을 조금씩 단계별로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도마뱀 구멍에 들어간다 해도 뒤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선지자님의 교우들)들은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선대 민족이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님께서서 “그들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답하셨다.

사히 무슬림 vol.4, p.1403, #6448-6449

“억압받은 자의 저주를 주의하십시오. 그들과 알라 사이에는 어떤 장막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366-377, #628

“오랜 여행으로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먼지로 뒤덮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손을 하늘로 뻗어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라고 간구하고 있으나 그는 금지된 음식을 먹고 금지된 음료를 마시며 금지된 의복을 입고 금지된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어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사히 무슬림 vol.2, p.486, #2214

“오! 사람들이여, 알라께 돌아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요. 나 역시 매일 백 번 회개합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18, #6523  
리아드-우스-살리힌 vol.1, p.10, #14

“오! 알라의 사도님! 저는 마땅히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알라의 사도님ﷺ은 그녀의 보호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녀를 잘 보살피고 출산하거든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는 알라의 사도님ﷺ의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난후 알라의 사도님ﷺ은 그녀에게 형을 선고하시고 그녀를 묶어 도로 때리는 사형을 집행하셨다. 알라의 사도님ﷺ이 장례 예배를 하시자 우마르가 질문하였다. “그녀는 간음을 저질렀는데도 당신께서는 그녀를 위한 장례 예배를 치러주십니까?” 알라의 사도님ﷺ이 이에 답하셨다. “그녀의 회개는 너무나 훌륭한 것으로 만일 그 회개를 70명의 메디나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충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권능으로 충만하신 알라께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녀의 회개보다 더 나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사히 무슬림 vol.3, p.917, #4207

“오! 압드 마나-프 부족이여! 오! 압둘 무탈립의 가문이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알라의 피난처를 구하십시오. 오! 아즈-주바이르 이븐 알 아우와암의 어머니!, 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당신 자신을 위해 알라의 피난처를 구하십시오. 나의 소유물 중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알라를 거역하여 내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4, p.479, #728  
사히 무슬림 vol.1, p.136, #402

“우두를 올바르게 하고 금요합동 예배에 임하여 정숙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금요합동 예배에 3일을 더한 날까지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갈을 가지고 장난했다면 그의 속죄는 중지될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vol.2, p.407, #1868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270, #1045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70, #331

우리가 선지자님ﷺ과 함께 앉아 있었을 때 어떤 남자가 와서 말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는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답했다. “저는 단식 중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라의 사도님ﷺ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노예 한 명을 해방시킬 대가를 지불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답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선지자님ﷺ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신은 두 달 동안 연속해서 단식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답했다. “아닙니다.” 이에 선지자님ﷺ은 침묵을 지키셨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종려나무 열매로 가득한 커다란 바구니 하나가 선지자님ﷺ께 도착했다. 선지자님ﷺ께서 물으셨다. “질문했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님ﷺ은 그 바구니를 건네주시며 자선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제가 이 종려나무 열매를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해야 합니까? 오! 알라의 사도님! 알라께 맹세하건데, 메디나에서 저희 가족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님ﷺ은 그 사람의 대답에 이가 보일 정도로 웃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가져

가 당신의 가족을 부양하십시오.”

사히 알 부카리 vol.3, p.89, #157

“위대하시고 영광되시는 알라는 종복들이 임종하기 전 숨을 헐떡 거리는 순간까지 회개를 받아줍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3430

리야드 우스 살리히 vol.1, p.12, #18

“의심나는 것은 단념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지키십시오.”

사히 수난 앓 티르미디 vol.2, p.309, #2045

“이 성원(카오바)으로 순례 와서 (핫즈 기간 동안) 죄악을 범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죄 없는 순수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3, p.27, #45&46

“잇고 있던 예배 하나가 생각났다면 빠진 예배를 보충해야 합니다. 예배를 보충하는 것 외에 다른 속죄의 방법(카프파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암송하셨다. 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만을 생각하라

사히 알 부카리 vol.1, p.328, #571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2, p.418, #3427

“종복들이 회개할 때 알라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사막에서 짐을 실은 낙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14, #321

사히 무슬림 vol.4, p.1434, #6611

리야드-우스-살리히 vol.1, p.10-11, #15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답했다. “오! 알라의 사도님! 저들은 저 노인의 아들들이며 노인은 (카으바까지 걸어가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알라의 사도님께서 노인에게 말씀하셨다. “탈 것을 타고 가십시오. 알라는 당신과 당신의 맹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3, p.873, #4020

아부 다우드 vol.2, p.936, #3295

“진실로 알라는 실수와 망각과 강요로 한 일에 대해 나의 추종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사히 수난 이븐 마자 vol.1, p.347, #1662

“칭찬 받기 위해 자기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같은 이유로 선행을 공개하는 사람은 알라에 의해 노출될 것입니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334, #506

“하나님은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신 후 그것들을 설명하시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운 뒤 그것을 실천하였을 경우 하나님은 10배에서 700배 혹은 그 이상의 선행으로 기록하시니라. 그러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행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한 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쁜 행위로 기록하시니라.”

사히 알 부카리 vol.8, p.329, #499

사히 무슬림 vol.1, p.75-76, #237

“(초기 민족 중에서) 한계를 넘는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이 죽은 뒤 시신을 화장시켜 유골의 재의 반은 대지에, 반은 바다에 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바로) 알라께 맹세하건데 만일 알라께서 그를 잡으신다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별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세상을 뜨자 가족들은 그의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는 대지와 바다에 명령하시어 유골의 재를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알라께서 그에게 그런 짓을 한 이유를 물으시자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당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당신은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알라께서 그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8, #6638

## 인용 문헌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사우디 아라비아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H.1425.

Big 베스트 성경 <이종성 박사>, 성서원

Abbasi, S. M. Madani, *Riyah-us-Saleheen*, (Arabic-English)

Albaanee, Muhammad Naasirud-deen al-, *Saheeh Sunan at-Tirmidhee*, (Beirut : Arab Bureau of Education for the Gulf States, 1st ed. 1988)

*Saheeh Sunan Ibn Maajah*, (Riyadh : Arab Bureau of Education for the Gult States, 1st ed. 1986)

*Mishkaatul-Masaabeeh*, (Beirut : al-Maktab al-Islaamee, 2nd ed. 1988)

Arnaa'oot, 'Abdul-Qadir al-, *Al-Adhkaar*, (Riyadh : Daar al-Hudaa, 2nd ed. 1988)

Badawi, Jamal, *Muhammad in the Bible*, (Halifax. Nova Scotia : Islamic Information Foundation, n.d.)

Hasan, Ahmed, *Sunan Abu Dawud*, English Translation, (Lahore : Sh. Muhammad Ahsraf, 1st ed. 1984)

Hujweeree, 'Alee ibn 'Uthmaan al-, *Kashf al-Mahjoob*, trans.

by Nicholson (London : Luzac, rep. 1976)

Johnson-Davies, Ezzeddin Ibrahim and Denys, *An-Nawawi's Forty Hadith*, (English-Arabic), (Damascus, Syria : The Holy Koran Publishing House, 1976)

Khan, Muhammad Mushin, *Sahih al-Bukhari*, Arabic-English, (Beirut : Dar Al Arabia, n.d)

Kramers, H.A.R. Gibb and J.H, *Shorter Encyclopedia of Islam*, (Ithaca, N. Y. : Cornell University Press, 1st ed. 1953)

Lane, E.W. *Arabic-English Lexicon*, (Cambridge, England : Islamic Texts Society, 1984)

Qunaibi, Muhammad Qal'aji and Hamid, *Dictionary of Islamic Legal Terminology*, (Arabic-English), (Beirut : Dar an-Nafaes, 1st ed. 1985)

Qurtubee, Muhammad al-, *Al-Jaami' li Ahkaam al-Qur'aan*, (Cairo : Daar al-Kutub al-Misreeyah, 2nd. 1959)

Siddeeqee, Muhammad ibn 'Allan As-, *Daleel al-Faatiheen*, (Cairo : Al Halabee Press, Final ed. 1971)

Siddiqi, 'Abdul Hamid, *Sahih Muslim*, English Translation, (Beirut : Dar al-Arabia, n.d.)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USA : G&C Merriam Company, 1976)



## 이슬람에 대한 한글 홈페이지 주소

<http://www.quran.or.kr>  
<http://www.muslimkorea.net>  
<http://www.koreaislam.org>  
<http://www.islamkorea.org>

## 이슬람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 주소

<http://www.sultan.org>  
<http://www.islambasics.com>  
<http://www.islamreligion.com>  
<http://www.lightuponlight.com>  
<http://www.islamqa.com>  
<http://www.al-sunnah.com>  
<http://www.hyahya.org>  
<http://www.islam-guide.com>  
<http://www.islamicvoice.com>  
<http://www.irf.net/irf/main.htm>